

연애, 결혼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초기 성인기의 중요한 심리사회적 과업이며(Erikson, 2014) 만족스러운 연애, 결혼은 개인의 심리, 신체, 사회적 건강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최근에는 만혼 혹은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연애 기간이 이전보다 길어지거나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고 연인 관계에 남는 것으로 결정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통계청, 2019a; 통계청, 2019b). 따라서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연인 관계에 관한 이해는 더 중요해졌고, 성인애착은 연인 관계의 만족을 예측하는 가장 대표적인 변인이다(Hazan & Shaver, 1987; Mikulincer & Shaver, 2003).

애착(attachment)은 생애 초 주 양육자에게 느끼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로 유아는 주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관한 내적 표상인 내적작동모형을 형성한다(Bowlby, 1973). 이러한 내적작동모형은 유아기뿐 아니라 이후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발전하게 되어 이후 맺게 되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연인이나 부부 같은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를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이라 하며 애착불안(attachment anxiety)과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Hazan & Shaver, 1987). 애착불안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걱정하며 상대방에게 버림받고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성이고 애착회피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여 자신을 개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하며 친밀한 관계 형성을 회피하는 경향성이다(Mikulincer & Shaver, 2007; Simpson & Rholes, 2012).

생애 초기 애착과 마찬가지로 성인애착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절 체계로 기능한다. 특히 성인애착 차원에 따라 연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각기 다른 조절 전략을 사용한다(Feeney, 1999).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잉활

성화전략(hyper-activation strategy)을 통해 약한 외부 자극에도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부적절하게 과도한 정서를 표출하고 부정 정서를 반추하면서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잉억제 전략(deactivation strategy)을 사용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거나 회피하며 상대방과 함께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된다(Mikulincer & Shaver, 2007; Woodhouse & Gelso, 2008). 각 성인애착 차원의 특성은 상이하지만 연인 관계만족에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관계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adden, Smith, & Webster, 2014; Li & Chan, 2012).

연인 관계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성인애착 차원에 따라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관계만족도 달라질 수 있다. 연인 관계 연구에서는 커플의 구별적이고 상호역동적인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Kenny, Kashy, & Cook, 2006)이 주로 사용된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은 자신의 예측변인이 자신의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인 자기효과와 상대방의 예측변인이 자신의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인 상대방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연인 관계 내 상호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관계만족과 유의한 부적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있었고, 성차는 없었다(Candel & Turlicu, 2019). 이성교제 중인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국내 연구들을 확인한 결과, 자기효과에서는 남성의 애착불안과 남성의 관계만족(김미정, 조영주, 2017; 최진주, 민경화, 2020), 남성의 애착회피와 남성의 관계만족(김미정, 조영주, 2017; 최진주, 민경화, 2020), 여성의 애착불안과 여성의 관계만족(김

미정, 조영주, 2017; 최진주, 민경화, 2020), 여성의 애착회피와 여성의 관계만족(김미정, 조영주, 2017; 최진주, 민경화, 2020) 간 부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방효과에서는 남성의 애착불안과 여성의 관계만족(백상은, 설경옥, 2015), 여성의 애착불안과 남성의 관계만족(최진주, 민경화, 2020), 여성의 애착회피와 남성의 관계만족(최바울 등, 2013) 간 부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는 갈등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결국 갈등에 대한 대처 방식에 의해 관계만족과 관계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Cramer, 2000).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negative emotion and behavior expression)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 정서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 불평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대담하는 것, 큰소리치거나 욕하는 것, 그리고 모욕감을 주는 것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 갈등 대처행동이다(김지현, 2006). 이러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은 대표적인 부적응적 갈등대처 행동임과 동시에(Kuster et al., 2015) 관계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갈등대처행동이다(Baumeister, Bratslavsky, Finkenauer, & Vohs, 2001). 갈등대처행동(적대감, 고통, 철수, 문제 해결, 친밀감)과 관계만족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메타분석 연구(Woodin, 2011)에서 효과크기(Cohen's *d*)를 확인한 결과, 적대감은 -0.63 , 고통은 -0.28 , 철수는 -0.28 , 문제 해결은 0.55 , 친밀감은 0.48 로 적대감과 관계만족 간의 부적인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대감은 분노 같은 강렬한 부정 정서, 건설적이지 않은 의사소통, 공격성, 그리고 지배 행동으로 정의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난, 경멸, 냉담, 방어의 관계

만족에 관한 상대적 기여도를 확인한 결과, 남성의 관계만족에는 남성의 비난과 경멸이, 여성의 관계만족에는 여성의 비난과 경멸 그리고 남성의 경멸이 유의한 부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김미정, 조영주, 2017).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러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중에서도 비협조적이고 회피적인 냉담,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방어보다 부정 정서와 행동을 표출하는 방식인 비난과 경멸이 관계만족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은 성인애착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Collins & Read, 1990).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과잉활성화전략을 통해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 부정 정서와 행동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과잉억제전략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 정서나 행동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애착회피가 높은 개인이 과잉억제전략을 사용한다고 해서 갈등 상황에서 부정 정서를 느끼지 않거나 부정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Main, 2000).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문제로 인해(Stevens, 2014) 갈등 상황에서 부정 정서를 경험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 또한,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상대방,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Mikulincer & Shaver, 2003) 상대방의 정서적 욕구를 무시하며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Simpson, Rholes, & Nelligan, 1992) 자신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로 더 쉽게 부정 정서와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성인애착과 관계의 질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Li & Chan, 2012)에 의하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슬픔이나 걱정 같은 부정 정서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공격, 비판, 강압, 그리고 철회 등 갈등을 악화시키거나 문제를 방치하는 상호작용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갈등 빈도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는 반면, 애착회피

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관계 내 갈등 빈도를 과소 지각할 수는 있으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관계에서 부정 정서와 행동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연인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이 변인들 간 관계를 유추할 만한 연구는 있다. 구체적으로 연인 혹은 부부의 성인애착은 갈등대처행동과 관계만족을 동시에 유의하게 예측했고(Shi, 2003), 부부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긍정적 갈등대처행동을 매개로 관계만족을 예측했다(Fuenfhausen & Cashwell, 2013).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미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매개함을 발견했다(김용주, 장현아, 2017).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현재 이성교제 중인 연인을 쌍 자료로 수집하지 않았고, 상호의존적인 연인 관계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김미정과 조영주(2017)는 이성 커플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사이 역기능적 의사소통(비난, 경멸, 냉담, 방어)의 매개효과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을 적용하여 확인했다. 그 결과, 애착불안과 관계만족 사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자기효과가 나타났고, 남성은 애착회피와 관계만족 사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에서도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상대방효과에서는 남성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는 남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여성의 관계만족을 예측했고, 여성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는 남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남성의 관계만족을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는 남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여성의 관계만족을 예측하는 혼합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관계만족 간의 부적인 관계를 남녀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이 매개할 것이라 예상했고, 이때 자기효과뿐 아니라 상대방효과도 존재할 것이라 예상했다.

교제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는 교제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계 초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상호의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관계가 다소 피상적일 수 있고(Rosen, Cheever, Cummings, & Felt, 2008) 관계에 대해 더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덜 지각할 수 있으며 갈등에 따른 부정 정서도 덜 표현할 수 있다(Assad, Donnellan, & Conger, 2007). 또한 연인 사이에 갈등과 이에 따른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이 존재하더라도 연애 초기의 강렬한 긍정적 자극에 의해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은 관계만족에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lements, Cordova, Markman, & Laurenceau, 1997). 그러나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다양하고 빈번한 갈등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으며(Lantagne & Furman, 2017; Stafford, Kline, & Rankin, 2004) 이는 관계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개인은 교제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관계 내 부정적인 변화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Hadden et al., 2014).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분리를 두려워하고 관계 위협이 되는 부정적 사건에 과잉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애착불안이 높은 개인은 관계 초기에는 상대방의 욕구나 정서에 민감하고 반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 일시적으로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Hazan & Shaver, 1987). 그러나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애착불안이 높은 개인은 상대방과의 의견 불일치와 다름

등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강화되면서 분노 혹은 짜증과 같은 부정 정서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확실한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과하게 요구하거나 불평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상대방의 애정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관계에서 불만족과 불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미래에도 계속해서 지금과 비슷한 결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Baldwin, Fehr, Keedian, Seidel, & Thomson, 1993), 이러한 모습은 시간이 지나서도 또 다시 반복되는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을 이끌 수 있어 관계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이 높을수록 갈등 상황에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관계만족은 낮아지며, 이는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관계만족 간의 부적인 관계를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이 매개하고,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가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클 것이라 예상했다.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이성교제 중인 성인 초기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가 교제기간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상호의존적인 연인 관계에서 변인 간 관련성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에 기반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했다.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남녀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적인 직접효과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남녀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관계

만족 간의 관계를 남녀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이 매개할 것이다. 매개효과에는 부적인 자기효과(예: 남 → 남 → 남)와 상대방효과(예: 남 → 여 → 여)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남녀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관계만족 간 남녀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는 교제기간이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녀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는 교제기간이 길수록 클 것이다.

가설 2 매개효과와 가설 3 조절된 매개효과의 전반적 방향성은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남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유의성을 예측할 만한 선행 연구가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 2, 3의 매개효과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와 이에 대한 교제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심리학 관련 강의와 온/오프라인 게시판 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커플에게 연구 안내 및 참여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온라인 설문 링크를 전달했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커플별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익명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했으며 코드번호는 커플 매칭과 남녀 구분에 활용했다. 설문에 참여할 때는 각자 분리된 장소에서 응답하고 서로의 설문 내용에 대한 질문과 논의를 삼가도록 안내했다. 유일한 개인 식별 정보인 연락처는 사례 제공만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연구 참여 전에 안내했고, 사례로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했다. 연구에 참여한 329쌍 중 남성 혹은 여성 한 명만 응답한 54쌍과 미성년자 1쌍을 제외했고, 남녀 모두 설문을 완료한 총 274쌍(54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남 24.33세($SD = 3.67$), 여 22.64세($SD = 2.88$)였다. 교제기간은 평균 15.57개월($SD = 16.53$)이었다. 구체적으로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은 87쌍(32.31%),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은 64쌍(23.46%),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은 40쌍(14.62%),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은 22쌍(8.08%),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은 22쌍(8.08%),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은 11쌍(4.23%), 36개월 이상은 27쌍(9.62%), 미응답 1쌍이었다.

측정도구

성인에착

Fraley 등(2000)의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Revised(ECR-R)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화한 척도(김성현, 2004)를 사용했다. ECR-R은 애착불안(예: “연인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과 애착회피(예: “연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다”)의 두 개 하위 차원,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된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김성현(2004)이 타당화한 척도는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친밀 관계 중 연인을 향한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을 ‘연인’으로 수정하여 사용했다. 미혼 이성 커플을 대상으로 한 최진주, 민경화(2020)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애착불안이 .90, 애착회피가 .7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애착불안은 전체 .89, 남성 .90, 여성 .89, 애착회피는 전체 .90, 남성 .89, 여성 .90이었다.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중 부정적 정서와 행동 표출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갈등대처행동 척도(김지현, 2006)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이성적 대처,

긍정적 정서 표현, 외부 도움 요청을 포함한 긍정적 대처 영역과 회피,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을 포함한 부정적 대처 영역으로 구분되며 5개 하위요인은 각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예: “연인에게 화를 낸다.”)의 문항을 사용했다.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되고(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연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미혼 이성 커플을 대상으로 한 설경옥 등(2016)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전체 .86, 남성 .86, 여성 .84이었다.

관계만족

관계만족은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결혼적응검사 척도(이경성, 한덕웅, 2003)를 결혼 전 관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척도(이경성, 한덕웅, 2005)를 사용했다. 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예: “연인과 함께 하는 동안은 행복하다.”)를 측정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만족스러움을 의미한다. 미혼 이성 커플을 대상으로 한 백상은, 설경옥(2015)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전체 .91, 남성 .91, 여성 .90이었다.

분석 절차

SPSS 18.0으로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했고 Mplus 7.4로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와 교제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으로 분석했다. 먼저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본 연구의 매개모형은 포화모형으로 모형적합도가 산출되지 않는다(Kenny et al., 2006). 다음으로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

에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가 교제기간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Hayes(2013)가 제시한 통계적 모델 가운데 모델 59를 적용했으며, 예측변인, 매개변인, 그리고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했다. 조절된 매개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FI가 .95 이상, RMSEA가 .08 이하, SRMR이 .08 이하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했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조건부 간접효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를 확인했다(Hayes, 2015). 추가적으로,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른 강도 혹은 방향성을 보이는지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고자 교제기간의 수준을 25 백분위, 50 백분위, 75 백분위 기준으로 구분하여(Lantagne & Furman, 2017) 교제기간별 매개효과를 확인했다.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각 효과의 유의도를 검증

했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각 효과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했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정상성 확인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일변량 정상성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했다(Curran, West, & Finch, 1996). 상관 분석 결과, 남성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여성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는 서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남녀의 애착불안과 남성의 애착회피는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과 정적 상관이, 남녀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모두 관계만족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표 1).

표 1.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관계

(N = 274쌍 (548명))

	1	2	3	4	5	6	7	8	9
1 남 애착불안	1								
2 남 애착회피	.36**	1							
3 남 부정정서행동	.25**	.31**	1						
4 남 관계만족	-.28**	-.57**	-.41**	1					
5 여 애착불안	.16*	.13*	.17*	-.18**	1				
6 여 애착회피	.18**	.12*	.02	.00	.43**	1			
7 여 부정정서행동	.23**	.13*	.27**	-.29**	.22**	.02	1		
8 여 관계만족	-.25**	-.17**	-.10	.16**	-.29**	-.62**	-.28**	1	
9 교제기간	-.05	-.03	.13**	-.22**	-.06	-.25**	.18**	.07	1
평균	2.97	2.42	1.67	5.49	2.94	2.48	2.17	5.28	15.57
표준편차	0.94	0.81	0.65	0.66	0.93	0.88	0.77	0.74	16.53

* $p < .05$, ** $p < .01$.

경로모형 검증 및 매개효과 검증

남녀의 성인애착이 남녀의 관계만족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갖는 동시에 두 변인의 관계를 남녀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이 매개하는 경로모형을 검증했다.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이 매개하는 경로모형은 남성 관계만족 변량의 42.5%(Adj- $R^2 = .43$), 여성 관계만족 변량의 49.5%(Adj- $R^2 = .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모수 추정 결과를 그림 1과 표 2에 제시했다.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3), 여성의 자기효과에서 애착불안과 관계만족 간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가 $-0.055(p = .003)$ 로 유의했다. 상대방효과에서는 남성 애착불안과 여성 관계만족 간 여성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가 $-0.044(p = .019)$ 로 유의했고, 여성 애착불안과 남성 관계만족 간

여성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가 $-0.029(p = .024)$ 로 유의했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남녀의 성인애착과 남녀의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남녀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를 교제기간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경로에 교제기간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했다. 모형적합도 평가 결과, CFI는 0.921, RMSEA는 .065(.041-.088), SRMR은 .043으로 모형이 비교적 자료를 잘 나타냈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교제기간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남성 애착불안과 남성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 간의 관계를 교제기간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b = 0.009, p = .004$) 교제기간이 길수록 남성 애착불안과 남성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 간 정적인 관련성이 더 큰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남녀의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성인애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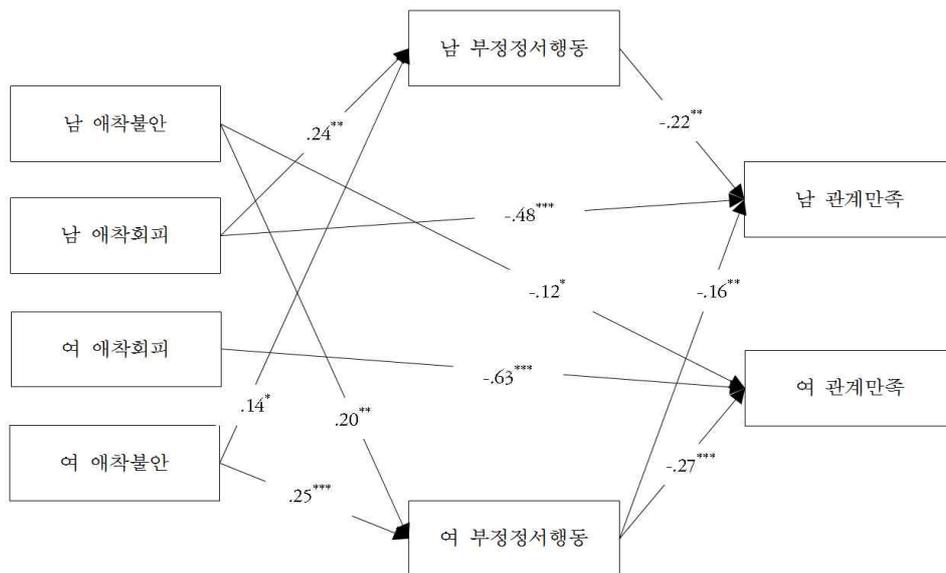


그림 1.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 경로모형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만 작성함.

표 2.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β	<i>B</i>	<i>S.E.</i>	<i>C.R.</i>
자기효과: 남성					
남 애착불안	→ 남 관계만족	-.021	-0.015	0.047	-0.317
남 애착회피	→ 남 관계만족	-.477***	-0.386	0.060	-6.462
남 부정정서행동	→ 남 관계만족	-.216**	-0.219	0.085	-2.568
남 애착불안	→ 남 부정정서행동	.156	0.108	0.059	1.815
남 애착회피	→ 남 부정정서행동	.244**	0.194	0.071	2.747
자기효과: 여성					
여 애착불안	→ 여 관계만족	.068	0.056	0.046	1.215
여 애착회피	→ 여 관계만족	-.628***	-0.539	0.054	-10.028
여 부정정서행동	→ 여 관계만족	-.269***	-0.266	0.058	-4.608
여 애착불안	→ 여 부정정서행동	.249***	0.205	0.053	3.872
여 애착회피	→ 여 부정정서행동	-.127	-0.110	0.064	-1.731
상대방효과: 남 → 여					
남 애착불안	→ 여 관계만족	-.122*	-0.099	0.040	-2.486
남 애착회피	→ 여 관계만족	-.042	-0.039	0.042	-0.935
남 부정정서행동	→ 여 관계만족	.029	0.034	0.063	0.533
남 애착불안	→ 여 부정정서행동	.202**	0.166	0.058	2.858
남 애착회피	→ 여 부정정서행동	.022	0.021	0.073	0.292
상대방효과: 여 → 남					
여 애착불안	→ 남 관계만족	-.071	-0.051	0.037	-1.353
여 애착회피	→ 남 관계만족	.097	0.072	0.043	1.696
여 부정정서행동	→ 남 관계만족	-.163**	-0.140	0.046	-3.056
여 애착불안	→ 남 부정정서행동	.137*	0.095	0.048	1.987
여 애착회피	→ 남 부정정서행동	-.097	-0.071	0.050	-1.427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

매개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자기효과: 여성					
여 애착불안	→	여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	→	여 관계만족	-0.055 (-0.109, -0.027)**
상대방효과: 남 → 여					
남 애착불안	→	여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	→	여 관계만족	-0.044 (-0.091, -0.015)*
상대방효과: 여 → 남					
여 애착불안	→	여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	→	남 관계만족	-0.029 (-0.062, -0.010)*

* $p < .05$, ** $p < .01$.

과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는 교제기간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제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변인인 교제기간의 수준에 따라 조건부 간접효과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나타 내주는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를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는 $b = -0.003(p = .027)$ 으로 95% 신뢰구간 (-0.006, -0.001)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남성 애착불안과 남성 관계만족 간 남성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를 교제기간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제기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교제기간을 25 백분위, 50 백분위, 75 백분위 기준으로 구분 하여(Lantagne & Furman, 2017) 교제기간별 매개효과를 확인했고,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했다. 남성 애착불안이 남성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을 통해 남성 관계만족에 미치는 매개효과 크기는 교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 크게 나타났다. 이때, 교제기간이 75 백분위(21.5개월)인 경우에만 95% 신뢰구간(-0.109, -0.018)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남녀의 성인애착과 남녀의 관계만족 사이 남녀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에서는 교제기간의 유의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성인애착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전체효과, 직접효과,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간접효과

예측변인	준거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β	<i>B</i>	β	<i>B</i>	β	<i>B</i>
남 애착불안	→ 남 관계만족	-.088	-0.062	-.021	-0.015	-.067*	-0.047
남 애착회피	→ 남 관계만족	-.533***	-0.432	-.477***	-0.386	-.056	-0.046
여 애착불안	→ 여 관계만족	.005	0.004	.068	0.056	-.063**	-0.051
여 애착회피	→ 여 관계만족	-.597***	-0.512	-.628***	-0.539	.031	0.027
남 애착불안	→ 여 관계만족	-.172**	-0.139	-.122*	-0.099	-.05*	-0.04
남 애착회피	→ 여 관계만족	-.041	-0.038	-.042	-0.039	.001	0.001
여 애착불안	→ 남 관계만족	-.141*	-0.100	-.071	-0.051	-.07**	-0.05
여 애착회피	→ 남 관계만족	.139*	0.103	.097	0.072	.042	0.031

* $p < .05$, ** $p < .01$, *** $p < .001$. 간접효과는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간의 관계에서 남성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과 여성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각 간접효과를 합한 값임.

표 5. 교제기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예측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	조절변인 수준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남 애착불안	남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	남 관계만족	4개월	-0.001 (-0.040, 0.028)
			10개월	-0.017 (-0.058, 0.006)
			21.5개월	-0.053 (-0.109, -0.018)*

* $p < .05$.

논 의

본 연구는 이성교제 중인 성인 초기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성인애착 차원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와 교제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관련성에 관한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남녀 모두 애착회피와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적인 직접효과의 자기효과가 유의했다. 선행연구에서도 애착회피와 관계만족 간 직접효과의 자기효과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다(김미정, 조영주, 2017; 최진주, 민경화, 2020).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연인과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이 불편해 연인과 거리를 두려고 하며 관계의 보상을 쉽게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Gere, MacDonald, Joel, Spielmann, & Impett, 2013). 이에 반해, 남녀 모두 애착불안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직접효과의 자기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김미정, 조영주, 2017; 최진주, 민경화, 2020)에서 남녀 모두 애착불안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적인 직접효과의 자기효과가 유의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애착불안과 관계만족 간의 관련성이 애착회피와 관계만족 간의 관련성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하나의 모형에 함께 포함되었을 때 애착불안과 관계만족 간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 직접효과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애착불안의 자기효과(r)는 남성 $-.26$, 여성 $-.23$ 으로 나타난데 반해, 애착회피의 자기효과(r)는 남성 $-.33$, 여성 $-.32$ 로 더 크게 나타났다(Candel & Turluc, 2019). 둘째, 하나의 모형에 포함되는 예측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의 조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 매개변인은 관계만족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애착불안의 직접효과의 자기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상대방효과에서는 남성 애착불안과 여성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적인 직접효과의 상대방효과가 유의했다. 남성의 애착불안은 거절이나 거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애매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친밀한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에게 관계에서의 불행감과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여겨져 관계만족이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Gabriel & Gardner, 1999).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2를 확인한 결과, 자기효과에서는 여성의 높은 애착불안이 높은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을 통해 낮은 관계만족을 예측했다. 이는 여성의 애착불안과 자신의 낮은 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매개함을 밝힌 김미정과 조영주(2017)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여성은 관계에서의 갈등을 자신에 대한 거절이나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여 강렬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두려움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관계에 더 불만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Campbell, Simpson, Boldry, & Kashy, 2005). 상대방효과에서는 남성의 높은 애착불안이 여성의 높은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을 매개로 여성의 낮은 관계만족을 예측했고, 여성의 높은 애착불안이 여성의 높은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을 매개로 남성의 낮은 관계만족을 예측했다. 종합하면, 여성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은 남녀 모두의 애착불안과 관계만족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교제 중인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남녀의 정서조절과 관계만족 사이 여성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설경옥, 백상은, 원수경, 황여주, 2016). 설경옥 등(2016)은 이러한 결과에 대

해 여성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은 여성 자신의 정서조절능력뿐 아니라 상대방 남성의 정서조절능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결국 여성 자신뿐 아니라 남성의 관계만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여성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은 자신과 상대방 남성의 애착불안에 영향을 받고 이는 남녀 모두의 관계만족에 부정적이었다.

교제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는데, 교제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남성에게만 나타났다. 교제기간을 조절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매개모형에서는 남성의 애착불안과 관계만족 간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의 자기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교제기간을 조절변인으로 포함한 조절된 매개모형에서는 교제기간이 긴 커플의 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강력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상대적으로 짧은 교제기간에 비해 오랜 교제기간의 남성에게서 그들의 애착불안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행동하는 경향성을 더 크게 예측했고 이는 결국 낮은 관계만족으로 이어졌다. 교제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첫째, 애착불안의 도식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애착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관한 관계 도식으로, 도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절되기보다 동화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교제기간이 증가할수록 애착불안에서 비롯된 부정적 행동이 점차 누적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Hadden et al., 2014).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갈등상황에서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하게 되고 이는 과도한 부정 정서 경험과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제기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심화되어 관계 내 갈등의 횟수는 물론이고 심각성이 증가하게 되어 애착 체계가 더 빈번하게 과잉활성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둘째, 관계 내 상호작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데, 대체로 관계가 진전될수록 자기개방을 통해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더 많이 표현하며 취

약성도 더 많이 공유하게 된다(Altman & Taylor, 1973). 또한,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관계 초기에는 주로 긍정적인 정서 표현이 많은 것과 달리, 관계가 깊어질수록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까지 더 많이 표현하게 된다(Dunleavy & Booth-Butterfield, 2009).

교제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남성에게만 나타났고, 여성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애착불안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가 교제기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을 분노, 짜증,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측정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분노에 기반한 언행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이, 강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Archer, 2004; Campbell & Muncer, 2008). 따라서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애착불안의 도식적 특성과 과잉활성화전략으로 인해 남성은 갈등 상황에서 부정 정서, 특히 분노와 분노에 기반한 행동을 더 많이 표출하게 되어 관계만족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성인 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부적인 관계에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특히 남성의 애착불안과 관계만족 간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의 자기효과가 교제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된 의의가 있다. 즉,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 관련성의 메커니즘과 이 메커니즘이 교제기간과 같은 관계 관련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세히 밝힌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현실적 적용에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성인애착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으로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 이에 반해,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갈등대처 행동은 대인관계적 맥락의 근접 요인으로써 치료나 교육을 통한 변화와 개선이 용이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료와 교육 장면에서 관계만족 증진을 위해 자기와 상대방의 성인애착 차원

의 수준과 그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계에서 자신의 부정 정서 및 행동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연습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남성의 경우, 부정 정서 및 행동의 과도한 표출이 교제기간이 길어질 때 자신의 애착불안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자신의 애착불안 수준과 그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자신의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은 자신의 애착불안뿐 아니라 상대방의 애착불안에 의해서도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애착불안 수준과 그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부정 정서 및 행동의 표출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고 표출을 조절하고 자제하는 노력이 관계만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개인 간 변인으로써 교제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에 따른 개인 내 변화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통해 성인애착 차원,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 관계만족의 시간에 따른 개인 내 변화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변인을 다양한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은 연인끼리 실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관한 실험실 기반 관찰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측정을 다양화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 슬픔, 두려움, 죄책감, 당황, 놀람 등 다양한 정서와 이에 기반한 행동 표출을 측정하고 간접적인 방식의 정서와 행동 표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연인 관계 갈등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와 행동에 대해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저자 소개

백상은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부부 및 연인 관계의 특성과 이에 따른 관계의 질 등이 있다.

설경옥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물질주의, 종교성과 같은 삶의 가치와 정신건강 문제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미정, 조영주 (2017). 미혼 커플의 성인애착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263-288.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주, 장현아 (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0), 61-82.
- 김지현 (2006). 조망수용, 관계귀인, 갈등대처행동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상은, 설경옥 (2015). 미혼 남녀의 성인 애착과 관계 만족: 주는 감사와 받는 감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351-381.
- 설경옥, 백상은, 원수경, 황여주 (2016). 남녀 개인의 정서 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에서 공동 대처 전략의 매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45-468.
-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679-705.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생활*, 19(1), 163-184.
- 최바울, 백근영, 이은지, 김애란, 왕윤정, 서영석 (2013). 커플의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27-250.
- 최진주, 민경화 (2020). 미혼 커플의 성인애착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로. *교육치료연구*, 12(2), 257-276.
- 통계청 (2019a). 인구주택총조사: 20-30대 연령층의 성별 미혼율.
- 통계청 (2019b). 인구동향조사: 평균 초혼 연령.
- Altman, I., & Taylor, D. A. (1973).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4), 291-322. <https://doi.org/10.1037/1089-2680.8.4.291>
- Assad, K. K., Donnellan, M. B., & Conger, R. D. (2007). Optimism: An enduring resource for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2), 285-297. <https://doi.org/10.1037/0022-3514.93.2.285>
- Baldwin, M. W., Fehr, B., Keedian, E., Seidel, M., & Thomson, D. W. (1993).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al schemata underlying attachment styles: Self-report and lexical decision approach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6), 746-754. <https://doi.org/10.1177/0146167293196010>
- Baumeister, R. F., Bratslavsky, E., Finkenauer, C., & Vohs, K. D. (2001). Bad is stronger than goo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23-370. <https://doi.org/10.1037/1089-2680.5.4.32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Y: Basic Book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Campbell, A., & Muncer, S. (2008). Intent to harm or injure? Gender and the expression of anger. *Aggressive Behavior*, 34(3), 282-293. <https://doi.org/10.1002/ab.20228>
- Campbell, L., Simpson, J. A., Boldry, J., & Kashy, D. A. (2005). Perceptions of conflict and support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role of attachment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510-531. <https://doi.org/10.1037/0022-3514.88.3.510>
- Candel, O. S., & Turliuc, M. N. (2019). Insecure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meta-analysis of actor and partner associ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7, 190-199. <https://doi.org/10.1016/j.paid.2019.04.037>
- Clements, M. L., Cordova, A. D., Markman, H. J., & Laurenceau, J.-P. (1997). The erosion of marital satisfaction over time and how to prevent it. In R. J. Sternberg & M. Hojjat (Eds.),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pp. 335-355). The Guilford Pres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https://doi.org/10.1037/0022-3514.58.4.644>
- Cra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134(3), 337-341. <https://doi.org/10.1080/00223980009600873>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Dunleavy, K. N., & Booth-Butterfield, M. (2009). Idiomatic communication in the stages of coming together and falling apart. *Communication Quarterly*, 57(4), 416-432.
<https://doi.org/10.1080/01463370903320906>
- Erikson, E. H. (2014). *유년기와 사회* [Childhood and Society]. (송제훈 역). 연암서가 (원전은 1950년에 출판).
- Feeney, J. A. (1999). Adult romantic attachment and couple relationship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55-377). The Guilford Press.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https://doi.org/10.1037/0022-3514.78.2.350>
- Fuenfhausen, K. K., & Cashwell, C. S. (2013). Attachment, stress, dyadic coping, and marital satisfaction of counseling graduate students.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21(4), 364-370.
<https://doi.org/10.1177/1066480713488523>
- Gabriel, S., & Gardner, W. L. (1999). Are there "his" and "hers" types of interdependence? The implications of gender differences in collective versus relational interdependence for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642-655.
<https://doi.org/10.1037/0022-3514.77.3.642>
- Gere, J., MacDonald, G., Joel, S., Spielmann, S. S., & Impett, E. A. (2013). The independent contributions of social reward and threat perceptions to romantic commi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5(6), 961-977.
<https://doi.org/10.1037/a0033874>
- Hadden, B. W., Smith, C. V., & Webster, G. D. (2014). Relationship duration moderates associ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relationship quality: Meta-analytic support for the temporal adult romantic attachment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8(1), 42-58.
<https://doi.org/10.1177/1088868313501885>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ayes, A. F. (2015). An index and test of linear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1), 1-22.
<https://doi.org/10.1080/00273171.2014.962683>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https://doi.org/10.1037/0022-3514.52.3.51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Jacobson, N. S., & Christensen, A. (1996). *Integrative couple therapy: Promoting acceptance and change*. W W Norton & Co.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NY: Guilford Press.
- Kuster, M., Bernecker, K., Backes, S., Brandstatter, V., Nussbeck, F. W., Bradbury, T. N. et al. (2015). Avoidance orientation and the escalation of negative communicatio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2), 262-275. <https://doi.org/10.1037/pspi0000025>
- Lantagne, A., & Furman, W. (2017). Romantic relationship development: The interplay between age and relationship length. *Developmental*

- Psychology*, 53(9), 1738-1749.
<http://dx.doi.org/10.1037/dev0000363>
- Li, T., & Chan, D. K. S. (2012). How anxious and avoidant attachment affect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differently: A meta-analytic review.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4), 406-419. <http://dx.doi.org/10.1002/ejsp.1842>
- Main, M. (2000). The organized categories of infant, child, and adult attachment: Flexible vs. inflexible attention under attachment-related stres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8(4), 1055-1096.
<https://doi.org/10.1177/00030651000480041801>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5 (pp. 53-152). Elsevier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3\)01002-5](https://doi.org/10.1016/S0065-2601(03)01002-5)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Y: Guilford Press.
- Rosen, L. D., Cheever, N. A., Cummings, C., & Felt, J. (2008). The impact of emotionality and self-disclosure on online dating versus traditional dat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5), 2124-2157.
<https://doi.org/10.1016/j.chb.2007.10.003>
- Shi, L. (2003).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conflict resolu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3), 143-157.
<http://dx.doi.org/10.1080/01926180390167142>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Simpson, J. A., & Rholes, W. S. (2012).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stress, and romantic relationship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5, pp. 279-328).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B978-0-12-394286-9.00006-8>
- Simpson, J. A., & Rholes, W. S., & Nelligan, J. S. (1992). Support seeking and support giving within couples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3), 434-446.
<https://doi.org/10.1037/0022-3514.62.3.434>
- Stafford, L., Kline, S. L., & Rankin, C. T. (2004). Married individuals, cohabiters, and cohabiters who marry: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nd individu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2), 231-248.
<https://doi.org/10.1177/0265407504041385>
- Stevens, F. L. (2014). Affect regulation styles in avoidant and anxious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12(3), 123-130.
- Woodhouse, S. S., & Gelso, C. J. (2008). Volunteer client adult attachment, memory for in-session emotion, and mood awareness: An affect regulation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2), 197-208.
<https://doi.org/10.1037/0022-0167.55.2.197>
- Woodin, E. M. (2011). A two-dimensional approach to relationship conflict: Meta-analytic finding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3), 325-335.
<https://doi.org/10.1037/a0023791>

1 차원고접수 : 2020. 09. 21.

수정원고접수 : 2021. 01. 15.

최종게재결정 : 2021. 05. 03.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Adult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 and Behavior Express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Length of Relationship

Sang Eun Baek

Kyoung Ok Seol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 and behavior express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length in the link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e hypothesized that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w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rough negative emotion and behavior expression and this mediating effect would be moderated by relationship length.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we analyzed 274 heterosexual dating couple data. We found that woman's attachment anxiety predicted her own and her partner's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through her negative emotion and behavior expression. Man's attachment anxiety predicted his partner's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through her negative emotion and behavior expression. Furthermore, man's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 and behavior expression in the link between own attachment anxiety and own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moderated by relationship length. That is,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 and behavior expression was stronger as he stayed longer in his relationship. This study found that adult attachment as a trait and relationship schema can explain couple's relationship satisfaction through negative emotion and behavioral expression, and how relationship length moderated this mediating effect.

Keywords: adult attachment, negative emotion and behavior express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length of relationship, APIM